

## 이공계 기피와 혼용평가에 대한 고찰

문 권 배 (상명대학교)

글로벌 시대에 이공계 학력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중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 실용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과학기술을 창출하려면 논리적인 사고법으로 사물을 정밀하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데, 그 능력이 수학, 과학교육의 학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학, 과학교육의 이공계 학력이 엉망이 되면 새 과학기술을 결코 넘볼 수 없기에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을 잃고 만다.

소수의 탁월한 인재가 그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인 만큼 국가와 지도자는 과학기술의 원천인 이공계를 특별히 육성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실력 있는 이공계 고등학생들이 의치대, 한의대를 선호하게 하고 있다. 배우기 어려운 이공계를 나와서 배고프고, 미래마저 없다는 현실 인식 때문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공계 기피를 조장케 하는 제도 중 하나가 현 대입 전형방법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몇 년 전 도입된 집중과 선택의 제 7차 교육과정은, 지금 특히 이공계 교육에서 집중은 없고 선택의 남용만 있다. 새 교육과정을 위한 첫 2005 대입 수능에서 수리영역은 예전보다 잘게 나누어 필요에 따른 선택으로, 과학 과목들은 사회와 직업탐구로 이루어진 탐구영역의 한 선택 군으로 체제를 바꿨다. 이 체제에서 많은 대학이 교차지원의 변형인 혼용평가를 대입 전형방법으로 선호하고 있다.

수리영역에서 가, 나형 혼용평가와 탐구영역에서 사탐, 과탐, 직탐중 하나를 평가한다는 혼용평가 도입은 수학과 과학을 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도 이공계에 입학할 수 있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이공계를 위해 이공계 과목 위주로 선발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혼용평가는 이공계 육성에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같은 사안도 학생, 대학, 국가의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 이공계에서 혼용평가 허용은 학생과 자기 대학 위주로의 생각이 뿐 국가경쟁력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다. 이공계 입시가 이공계를 위한 수학, 과학교육의 집중은 별로 없고 학생들을 끌기 위한 선택의 바겐세일인 혼용평가만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이 상태로 몇 년을 가면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학, 과학교육이 이공계 학생에게도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기피의 단초를 제공하는 대입 전형의 혼용평가가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에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또 이러한 제도가 용인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개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